“아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건데...” “아 그것도 좀 물어볼걸…” 하는 경험, 병원을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나요? 준비를 많이 하고 가더라도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긴장, 불안감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. 대한민국의 ‘3분 진료’ 의료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의사에게 효율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충분히 질문할 수 있을까요?

저희 HealthorFlow는 자연어처리(NLP)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챗봇 형태의 스마트한 예진 기능을 제안합니다. 환자가 챗봇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사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위주로 자신의 증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, 비슷한 환자들이 자주하는 질문들 및 의사에게 놓치지 말고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추천해주어 질문리스트를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진료실에서 환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치료계획, 걱정되는점, 궁금한 점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눌 수 있게됩니다.

의사는 묻고 환자는 답하는 형식의 일방향적인 의사소통 형태에서 환자가 진료전 미리 자신의 증상과 궁금한 점을 정리하여 능동적으로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로 의사소통의 흐름(flow)을 재정립하게 된다면,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하는 진료시간을 가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.